

안전체험교육이 안전한 사회 문화를 이끌어낸다



글 |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제대로 배운 안전교육이, 또한 한 순간의 올바른 교육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개개인의 생명을 살리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적절한 대안이 바로 안전교육이며, 안전교육은 안전을 생활화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1. 머리말

올해 2월 어린이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도 영월 화재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다. 6살 된 어린이는 집에 불이 났다고 119에 두 번이나 신고전화를 하며, 두 명의 어린 동생과 함께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소방대원의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다 결국 화마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 과연 그 아이가 두 번이나 119에 전화를 한다고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밖으로 나갔더라면, 아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가 ‘불이 나면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 대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더라면 아이의 운명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2003년 한 정신질환자의 방화로 사망자만 200여 명에 달했던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대 참사다. 작은 사고로 해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 초기 대응의 미비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전동차에 탔다가 간신히 빠져 나온 한 대학생은 “연기가 퍼지자 곧바로 바닥에 엎드렸다가 빨리 빠져 나왔다.”며 “연기가 가득 차서 승객들이 기침을 하는 데도 일부 여성들은 휴대전화를 하느라 연기를 마셨다.”고 말했다.

이 두 사건에서 우리는 중요한 시사점을 얻

을 수 있다. 제대로 배운 안전교육이, 또한 한 순간의 올바른 교육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안전사고는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과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재난인 인재가 있다. 요즘은 천재지변이라 해도 사전에 어느 정도 예보가 가능하기에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인재는 자칫 한 사람의 안전의식 소홀로 인해 대형 참사를 초래하여 사고의 희생자를 만들기도 한다. 반면에 안전사고에 직면했을 때 안전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대처능력이 올바르게 갖추어졌다면 그 피해는 최소화된다.

이 글에서는 개개인의 생명을 살리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적절한 대안이 바로 안전교육이며, 안전교육이 안전을 생활화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믿음에서 글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2. 안전의 욕구와 안전한 사회의 구성요소

매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안전의 욕구라고 한다. 즉 먹고, 잠자는 등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는 그 다음은 안전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인



간의 기본적인 생리라는 것이다. 기본적인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안전한 사회는 크게 사회체계와 구조적인 측면, 즉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안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안전사고들은 대개 시스템이나 관리운영의 문제가 주요 원인이 되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인적 자본인 인간들 개개인의 안전의식도 안전한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몫이다. 즉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안전의식도 안전사회를 구현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안전의식은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이때 대두되는 것이 바로 안전교육이다.

3.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안전교육의 목적

안전교육은 오랫동안 안전대책의 근간을 이

루어왔으며, 사고를 줄이고 상해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믿어왔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사고 예방이 지식의 문제이고 개인의 책임 문제라는 믿음에서 출발하였으며, 사고가 인간의 부적절한 지식, 기술, 태도의 결과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안전지식을 제공하여 개개인의 지식의 증가와 위험을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을 무시하는 행동과 태도의 변화로 좀더 안전한 행동을 조장함으로써 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이 교육적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안전한 행동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바로 개개인의 안전능력이 필요하다. 안전능력이란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잠재위험을 사전에 발견하여 적절한 판단과 침착한 행동으로 그 위험을 제거하고, 회피하는 능력이다.

안전한 행동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바로 개개인의 안전능력이 필요하다.

안전능력이란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잠재위험을 사전에 발견하여 적절한 판단과 침착한 행동으로 그 위험을 제거하고, 회피하는 능력이다.

또한 사고는 때때로 모든 조건이 중첩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과 사고를 최소한으로 저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안전교육의 성공 여부는 교육 대상자와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대상별로 무엇을 교육해야 할 것인지가 쟁점 사항이 된다. 특히 고위험 연령층과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모든 연령, 모든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 안전생활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교육은 단순히 학교 울타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 기업이 신입사원들이 자칫 범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사고 특성별 안전교육 방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 학교, 지역 사회 등 모든 생활환경에서 안전증진을 도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4. 체험교육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형태

종합적인 안전능력의 형성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일방향적인 이론교육이나 관람형태의 교육은 효율적이지 않다. 지금까지 안전교육이 대부분 이론교육에 치중된 탓에 실제 재해 발생시 대처능력이 미숙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다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체계적인 직접 경험과 가장 근접한 방식인 체험 위주 교육방식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체험교육 형태 또한 가능한 실제 상황과 흡사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가적으로 체험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담당자의 연령별 이해가 필수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험은 직접 겪어서 얻는 경험과 책 등을 통해 얻는 간접경험이 있다. 사람의 가치관이나 사고를 결정하는 요인은 위의 두 가지 중 단연히 직접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교육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가령 화재를 겪어본 사람에게 화재의 무서움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화재에 대한 간접 경험, 예를 들어 누구 집에 불이 났다 등의 간접 경험만 있는 사람에게는 화재란 단지 느껴보지 못한 무서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요즘 일반교육이 과거의 단순주입식이나 일방향적인 교육형태에서 점차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 대상자들의 역할극이나 체험학습, 게임오락과 연계한 교육진행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 안전교육 또한 그 자체의 딱딱한 느낌으로 인해 이러한 수 정된 교육형태를 먼저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안전체험 교육관인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이 지난 2003년 3월에 개장하여 유아부터 성인에게까지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필자는 2005년 11월 16일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한 경기 모 초등학교 학생 183명을 대상으로 '체험교육 실시 이후의 안전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교육효과나 만족도에서 시민안전체험관 체험교육이 일반적인 이론교육에 비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와 같이 직접적인 경험이나 활동을 통해서 안전개념을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유사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모의 학습지도 방법을 많이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 경우 다양한 체험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와 달리 직접 교육 대상자를 찾아가는 이동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대상자 중심의 찾아가는 안전교육인 것이다. 특히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직접 경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험교육과 더불어 실제 도로에 나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도 찾아 볼 수 있다.

5. 안전교육이 안전한 사회 문화를 이끌어

이러한 안전교육이 실생활에 내재화될 때 개개인의 안전능력이 함양되고, 전 사회로 확대되어 나갈 때 안전문화가 형성되고 안전한 사

회가 구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면서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기준이 되는 가치, 신념, 의식, 상징, 행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 신념 등이 문화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를 이룬다.

문화가 조직 내 모든 것의 형태와 성격을 결정하기에 우리가 사물이나 사건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기준은 결국 우리 사회의 문화가 제공하며, 그렇게 판단되고 해석된 결과가 다시 문화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따라서 안전을 보는 기준은 문화가 제공하며 안전의 구성요소도 문화가 결정한다. 즉 문화에 따라서 안전의 상대적 중요도가 달라지며 안전에 대한 구성원의 행동도 달라진다.

안전문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안전의 체질화, 생활화, 무의식적 행동, 사회적 공감대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즉 의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안전관련 규범이 저절로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 정도를 안전문화가 정착된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6. 맺음말

매일매일 접하는 TV와 일간지 같은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는 교통사고,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나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거나 매우 운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

다. 언제부터인가 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안전사고는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되는 무관심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항상 우리는 안전사고를 나오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버릇이 있다. 그 이유는 어쩌면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 하에서 어떤 방법으로도든 가장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이를 최고라 여기는 사고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대형 참사가 대부분 안전불감증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의식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

‘개인의 안전은 스스로 먼저 지켜야 한다.’는 명제를 전제로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개인의 안전능력을 배양하여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지와 위험사항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단순한 주입식, 일방향의 교육형태가 아닌 실제 위험 상황을 재현하여 실제와 동일한 체험교육과 같은 효율적인 교육방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여러 위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이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체계적인 체험교육을 통해 각 개인에게 안전의식이 내재화되고 확산되어 갈 때 이것이 우리 문화에도 스며들어, 단순히 눈앞의 이익보다는 인간이 우선되고 인간 생명의 존중에서 더 나아가 생명살림운동으로 그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안전문화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